

양돈인의 단합을 추구하는 광주·장성·담양지부

—추 용 진—



◀ 최희태 지부장(중앙)과 최춘숙(좌), 백영희(우)여직원의 모습

돼지고기 수입 완전개방 등으로 양돈산업도 이제 국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양돈인들이 하나로 뭉쳐 단합된 힘과 슬기를 발휘할 때라고 최희태 지부장은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양돈인들의 단합을 중요시 여기는 광주·장성·담양지부(지부장: 최희태)는 83년도에 광주지부로 창립을 하였다. 그후 흩어져 있는 인근 담양지역 양돈인들과 장성지역의 양돈인들을 모아 흡수하면서 95년 2월부터는 광주·장성·담양지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공동 사료구입, 공동 돼지출하로 회원들에게 혜택

광주·장성·담양지부의 회원들은 50여명으로 대부분 자가노동 중심이고 평균 돼지 사육 1,000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원은 지부장, 전무, 이사 6명, 감사 2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광주·장성·담양지부는 회원중에서 23명이 광주유통을 창립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유통은 회원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료,약품,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구입, 돼지 공동출하, 인공정액 공동 구입 그리고 양돈장 관리 프로그램인 Data Pig를 93년에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돈장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과 전산 처리를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fax를 구입하여 준다.

광주·장성·담양지부는 회원들의 고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전 회원이 AI를 필히 실시토록 한다. 전 회원 농가에서 균일한 돼지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은 2군데의 인공수정센타에서 주단위로 약 40복의 돼지 인공정액을 지부 사무실에 가져오면, 이를 지부 회원들이 각자의 농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사료는 월 약 1,000톤을 공동 구입하며, 보온등, 전기판넬, 워터컵 등의 축산기자재는 1년에 4번

으로 나눠서 300 ~1,500 만원 정도를 구입하고 있다.

광주·장성·담양지부 회원들은 월 1,500두의 돼지를 정읍에 있는 부천산업에 공동 출하하고 있다. 일정량의 돼지를 공동으로 출하함으로써 회원들은 돼지가격이 떨어지더라도 600g 한근당 830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돈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경우 전체 회원들은 약 2억 4천만원을 보상 받은 것이 되었다.

한편 동물약품도 100% 공동으로 구입함으로써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회원 전체가 인공정액, 사료, 약품 그리고 기자재를 공동 구입하고 돼지를 공동 출하하여 균일한 돼지 생산, 생산비 절감 등의 이득뿐만 아니라 양돈인들의 단결된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양돈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

광주·장성·담양지부는 회원들의 단합과 양돈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양돈 선진국 견학을 실시한다. 작년에는 일본의 양돈 현황을 견학하고 올 11월 15일에는 회원 26명이 4박 5일동안 태국 사료박람회 참석하고 돌아왔다.

또한 분뇨처리 문제가 양돈경영에 압박을 주고 있어 카브르 시스템 등 분뇨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중국 한방 레이저 침술 강연회

수시로 효율적인 분뇨처리 방안과 공동 분뇨처리시설의 도입여부 등을 논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돈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광주·장성·담양지부는 지부차원에서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육성돈사료를 생산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최희태 지부장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광주·장성·담양지부 사옥을 갖는 것이 숙원이라고 말하고 이 건물에 돼지고기 직판점, 식당, 지부 사무실 그리고 양돈을 했던 양돈인들의 모임장소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희태 지부장은 “정부는 정부권한을 생산자단체(중앙회)에 위임하고 도협의회장과 지부장들에게 회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최지부장은 “수입 돼지고기 완전개방으로 2000년까지는 양돈산업의 과도기가 될 것이므로 이 과도기를 잘 넘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돈인들의 단합된 힘이 있어야만 양돈산업이 발전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말을 떠올리며, ‘나’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라는 의식을 가진 양돈인들이 모였을 때 그 힘이 깊은 뿌리가 되어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양돈산업으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사양관리세미나 모습